

광주·전남 7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교원확보

원광대는 명예 회복

광주·전남지역 7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이중 전남 도립대는 학자금 제한대출 대학으로 까지 선정된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세한대(옛 대불대), 초당대, 한려대 등 3곳이 포함됐다. 전문대는 전남도립대와 고구려대, 한영대, 조선이공대 등 4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4년제 대학은 3곳

교과부, 재정지원 제한 지역대학

- 4년제-세한대·초당대·한려대
- 전문대-전남도립대·고구려대·한영대·조선이공대

으로 같지만 전문대는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초당대와 세한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한려대는 평가과정에서 하위 지표를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에 명단에 선정됐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뽑히면 내년에 실시되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도 늘릴 수 없다.

특히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포함된 전남도립대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학자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학생 입장에서는 입학을 꺼리게 되므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우려된다.

도립대는 교과부가 다음달부터 2개 월간 실시하는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돼 심사결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통·폐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 등록금 인하, 장학금 조성,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등 자구노력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됐던 원광대는 정원감축과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을 자구노력을 통해 올해 명예회복을 했다. 원광대는 2013학년도 6개 학과를 폐지하고, 5개 학과를 통폐합하는 한편 전임교원 확보율도 지난해 57.8%에서 68.4%로 늘었다.

전남도립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몇 가지 지표가 좋지 않아 이번에 나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교육 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에는 불명예를 반드시 씻겠다”고 밝혔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1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광주·전남 청소년축제'에서 춤연에 출연한 중앙여고 '빅사이즈걸스'가 최우수상 수상 후, 엠블 콘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000여 중·고생, 댄스·밴드 등 열띤 경연 '갈채'

광주일보 주최 '2012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성료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과중한 일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한바탕 꿈을 노래한 한여름밤의 축제가 열렸다.

지난 1일 광주일보 주최로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2 광주·전남 청소년축제'에는 지역 청소년과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관련기사 13·18면)

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열린 청소년 축제는 ▲ 중·고등학생들의 댄스·밴드·풍물 경연, 아이돌 가수 공연 등 축제의 장 ▲대학 진학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광주·전남지역 30개 대학 홍보관 등 정보제공의 장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에서 수상한 중고생들의 우수한 작품들은 특설무대에 상영돼 박수를 받았다.

밴드부문에서는 동신고 팀이, 댄스 부문 중앙여고, 풍물부문은 문성고 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갈채를 받았다.

초청가수 공연에는 걸그룹 '걸스데이'를 비롯, MBC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2'의 우승자 구자령, KBS2 밴드 오디션 출연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타카페 등이 출연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길거리 농구대회에 참여한 고교생들은 틈틈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에서 수상한 중고생들의 우수한 작품들은 특설무대에 상영돼 박수를 받았다.

특설무대 좌·우에 마련된 지역 대학들의 홍보부스에서는 수능을 앞둔 고3을 비롯한 고교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는 등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전국 교원능력 평가

교과부, 11월 말까지

나이스 접속 절차 간소화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12년 교원능력평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면 시행 3년째를 맞는 교원평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학생·학부모는 교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교사는 동료 교원 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학부모가 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나이스 접속 절차를 종전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고 설문지 형태도 간소화했다.

조사의 정확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위한 공개수업과 상담을 활성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소식자료 제공도 늘렸다.

평가 시기와 기간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9월 첫 주부터 11월 네째 주 사이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도 교원평가를 교과부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는 전북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등 참여

'시민사법위' 창립

위원 26명 위촉식도

광주 고등·지방·가정법원은 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창립총회와 위원 위촉식을하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칙을 제정하고 외부 운영위원회를 선출한 뒤 앞으로의 시민사법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재판사무·사법 행정에 관한 제도와 실무 관행 개선 방안 등 의견을 내고, 지역민 여론 전달, 사법행정·재판진행·언행 모니터링 등도 한다.

위원회는 법원 내부인사 9명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17명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뜰 06시 06분
해진 18시 57분

달출 20시 06분
달진 08시 31분

낮 한때 빛방울

구름이 많고 낮 한때 빛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다.

광 주	구름많음	21/30 °C
목 포	구름많음	20/28 °C
여 수	구름많음	21/28 °C
나 주	구름많음	20/30 °C
완 도	구름많음	20/29 °C
구	구름많음	20/30 °C
강 진	구름많음	20/29 °C
해 남	구름많음	19/29 °C
장 광	구름많음	19/29 °C
순 천	구름많음	19/29 °C
영 광	구름많음	20/30 °C
진 도	구름많음	19/28 °C
전 주	구름많음	20/30 °C
군 산	구름많음	20/28 °C
남 원	구름많음	18/30 °C
흑 산	구름많음	21/28 °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자수
서해 남부	일비다	동~남동	0.5m 0.5~1.0m	자외선수 피부질환자수
만비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0.5~1.0m	
만비다	북동~동	1.0~1.5m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비다	남동~남	0.5m 0.5~1.0m	목포 03:43 16:03	08:52 21:07
만비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0.5~1.0m	여수 10:29 22:40	04:13 16:23
만비다	동~남동	1.0~1.5m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최저/최고 22/28 23/27 21/29 22/28 21/29 21/28

내일 마지막 모의평가…수시 전략·마무리 학습 요령

가채점 성적 좋을땐 '정시' 옮인

틀린 문제 분석…선택·집중 필요

2013학년도 수능을 두 달여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4일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모의평가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수시·정시 지원전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채점 결과로 전략 마련=모의평가 성적이 학생부 성적보다 월등히 좋다면 날은 기간 수능에만 집중해 정시에 '올인'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정시는 수능이 당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목표 대학을 3~5개 선정해 해당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 중심으로 수능에야 한다. 모의평가가 성적이 학생부 성적보다 월등히 낫다면 수시 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은 분석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파악하고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방 대학이 대학별 고사지를 본다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앞선 두 경우가 아니라면 수시와

정시를 모두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정시모집을 염두에 둬 수시는 하향지원보다는 소신지원하고 수능 공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영역별 선택과 집중=우선 모의평가에서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점수가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 영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언어영역은 EBS 교재 지문이나 문학 작품을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잘 아는 지문이 출제되면 독해 시간을 줄이고 문제 풀이를 더 잘할 수 있다.

수리 영역은 EBS 교재를 통해 비슷한 유형 문제에 대비하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 변형된 문항에도 대비해야 한다. 외국어 영역 역시 EBS 교재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활용되므로 문제풀이만 하는 것보다는 지문을 꼼꼼히 학습하고 배경지식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은 분석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파악하고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방 대학이 대학별 고사지를 본다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앞선 두 경우가 아니라면 수시와

정시를 모두 공략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div style="width